

21세기 대학도서관과 사서의 전문성에 관한 고찰*

손 정 표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目 次

1. 서 언
2. 대학도서관을 둘러싼 정보환경의 변화추이
2.1 대학교육환경의 변화
2.2 정보환경의 변화
3. 정보환경변화에 따른 21세기 대학도서관의 변모와 사서의 전문성
3.1 21세기 대학도서관의 변모
3.2 사서의 전문성
4. 결 론

1. 서 언

앨빈 토플러(A. Toffler)가 그의 최근의 저서인〈권력이동〉이라는 책에서 ‘오늘과 내일의 시대는 바로 정보를 많이 소유하는 자가 곧 권력을 가진다’고 강조한 바처럼 현대는 이제 ‘Know how’의 시대가 아니라 ‘Know where’의 시대, 즉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얼마만큼 얻

어나 빨리 입수할 수 있느냐가 국가건, 지역이건, 기업체이건, 개인이건 곧 성패의 관건이 될 수 밖에 없는 세계적인 방향전환으로 치달고 있다. 이는 근래 들어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인터넷(internet), 사이버 스페이스(cyber space), 웹(web), 정보고속도로, 초고속정보통신망, 전자우편이라든가 새로운 개념의 미래형 도서관인 전자도서관(electronic library), 디지

* 이 논고는 1996년 7월 4일에 개최된 제11회 전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사서연수회에서 발표한 주제강연의 내용을 수정가필한 것임.

탈도서관(digital library), 멀티미디어도서관(multimedia library), 가상도서관(virtual library), 가상현실도서관(virtual reality library) 등의 용어들이 일반 대중은 물론 정보전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에게조차 익숙해지기도 전에 벌써 보편화된 용어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더라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뿐 아니라 다가올 21세기는 국가 경쟁력이 국가 정보력, 즉 시간과 장소, 정보유형에 관계없이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아 이의 대비를 위해 선진 각국은 이미 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자국의 정보력 확대를 위한 국가 프로젝트들을 수립하여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¹⁾

이처럼 고도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회가 정보사회로 급변해 감에 따라 대학교육의 목적과 기능도 학문의 자유를 바탕으로 인간의 지성을 개발하고, 진리탐구의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인류가 쌓아 놓은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 역할담당과 국가사회의 지도자 양성이라는 전통적인 목적 외에, 산학협동체제를 강화하여 현실 사회의 개조를 위한 당면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풍토 조성은 물론 데이터 뱅크로서의 역할담당²⁾이라는 새로운 목적지향적인 방향설정으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 우리나라 대학들도 후술한 바와 같이 21세기의 대비를 위한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세계화 도모

를 위해 교육제도의 개선,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제 도입, 새로운 교육환경의 조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일대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도서관들도 역시 그러한 현실에 적응하여 그 이념구현과 효율적인 목적수행을 하기 위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적극적인 국고지원에 힘입어 자료 및 시설확충과 도서관전산화 추진 등 봉사구조 재체제화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의 현황을 보면 정보의 질이라든가 전문인력의 질 등의 소프트웨어 측면은 물론 직원, 자료, 시설의 물리적인 하드웨어 측면조차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어 21세기의 정보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대학도서관의 기능을 극대화 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바, 세기적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개념의 대학도서관상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고는 그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개념의 대학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모형제시보다는 21세기의 진입을 목전에 둔 대학도서관의 주변환경변화, 즉 21세기를 대비한 대학 자체와 도서관을 둘러싼 정보환경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이와 같은 주변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도서관은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고 어떤 정보봉사 형태를 취해야 하며, 전문사서들은 전통적인 직무수행 외에 어떤 업무에 보다 중점을 두어 지금부터 자기개발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몇마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김성혁, “종합문화 정보공간으로서의 전자도서관,” 圖書館文化, 36권, 3호(1995, 5.6), p.12.

2) P. F. Drucker, 斷絶의 時代, 韓國能率協會 譯編(서울: 韓國能率協會, 1971), pp.455~459.

2. 대학도서관을 둘러싼 정보환경의 변화추이

2.1 대학교육환경의 변화

21세기를 눈 앞에 둔 우리나라 대학들은 최근 2, 3년 전부터 본격적인 변혁의 산고를 겪고 있다. “대학의 대중화 정책에 따라 그동안 양적 팽창을 거듭해 온 대학들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학 수용능력을 밀돌것으로 전망되는 대학입학적령 인구의 감소 추세와 외국에 대한 교육시장의 개방 등 외적 요인과³⁾가증되는 재정적 어려움 등 내적 요인으로 인해 이제는 대학의 질적 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³⁾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당국은 많은 국가들이 이미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듯이 대학간 경쟁을 유도하여 “사회적 인정을 위한 대학별 자구적 노력의 확대, 대학경영에 있어서의 효율성 제고, 대학의 사회에 대한 책임성 제고, 대학의 자율성 진작, 대학간의 협동성 진작, 대학재원의 확충”⁴⁾을 기대하고자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1994년부터 교육, 연구, 사회봉사, 교수, 시설·설비, 재정, 경영의 6개 영역, 22개 부문에 걸친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고⁵⁾, 나아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수연구업적 평가제의 도입, LAN 구축과 멀티미디어를 통한 교수-학습방법 및 연구 패턴의 개선, 대

학 행정 및 학술정보체제의 전산화 구축과 같은 새로운 교육환경의 조성 등 21세기를 대비한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세계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1996년부터는 학생들의 전공선택과 진로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학부(또는 계열)제 및 최소전공인정학점제, 복수 전공제를 실시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교육부는 1997년도부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나 사회교육원을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⁶⁾를 도입하여 대학을 평생교육의 거점으로 삼고 시설을 학외 시민에게 개방하는 「열린 대학」을 추구하고 있고, 1998년도부터는 우수대학부터 점진적으로 대학입학정원을 자율화 하는 등 일대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개혁 추진의 이면적 의미는 특색을 지니는 교육과 연구의 질의 제고만이 아니라 대학간의 경쟁에서 패할 경우에는 곧 대학의 수준이 떨어지고 나아가 그 존립 조차 위태롭게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앞으로 7, 8년후부터 도래하게 될 18세 인구의 감소 시대와 1998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될 외국에 대한 대학시장의 개방, 국고 보조금의 점진적 삭감을 비롯한 대학 재정의 압박, 경제 악화 극복을 위한 절감경영의 실시 등과 같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대학은 지금 이상으로 기

3) 서혜란,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실시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권, 1호(1996, 3), p.20.

4) 경북대학교 자체평가연구위원회, 1994년도 대학 종합평가인정을 위한 경북대학교 자체평가연구보고서(대구: 동위원회, 1994), p.4.

5) *Ibid.*, pp.5~6.

6) 韓國教育新聞, 1996年 7月 24日字, p.3.

반을 정비하고 강화를 도모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의 대학들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미 실감을 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현재 일본의 대학은 겨울의 시대에 놓여 있다고 말해지고 있다. 그것은 이미 도래한 18세 인구의 점감시대, 국가재정의 압박으로 인한 예산과 보조금의 삭감, 거품경제의 붕괴로 인한 불황과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 이러한 역풍속에서 대학은 지금 이상으로 기반의 정비와 강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돌입하고 있기 때문”⁷⁾이라고 한 점을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대학환경의 변화는 곧 바로 그 굴레안에 있는 대학도서관에도 그와 유사한 영향을 미친다함은 재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즉 “도서관의 자기 점검, 자기평가의 결과를 운영의 개선에 살려나가는 한편, 자료비 삭감이나 직원의 감축속에서도 업무를 효율화함과 동시에 봉사를 확대하고, 열린 도서관(open library)으로서의 기능을 사회로 확대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⁸⁾

2.2 정보환경의 변화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가운데서 현재 도서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든다면 출판의 변화와 컴퓨터기술의 영향을 들 수 있다.

먼저 출판의 변화를 살펴 보면, 지난 500년동안 인류에게 가장 친숙해 왔던 인쇄기록매체와 100여년간 그런대로 자리매김을 해 왔던 사진기록매체 등의 출판이 정보화사회와 더불어 전자기록매체에 의한 전자출판(electronic publishing)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현상은 도서관의 장서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세기초까지만 하더라도 종이인쇄방식의 출판물이 도서관장서의 전부를 이루어왔지만 사진기술과 디지털기술의 도입 등 출판기술의 혁신은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계가독화형태의 새로운 자료들을 도서관장서로 편입시켜 놓기에 이르렀다. 즉 사진기술의 실용화는 도서관장서에 사진자료라는 새로운 자료의 종류를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텍스트형의 자료에 사진기술을 응용시켜 마이크로자료형태로의 매체변환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러한 매체변환기술에 의한 마이크로자료화는 곧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부터 도서관자료의 폭발적인 증대에 따라 수반되기 시작한 서고문제와 자료보존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금세기 후반, 특히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21세기의 파피루스라고 불리우는 광기록매체(CD-ROM, 광디스크)의 개발 성공과 컴퓨터기술의 발달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데이터베이스로 대표되는 디지털출판의 비중이 높아지는가 하면,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컴퓨터라이즈드 타이프세팅 시스템(CTS: computerized typesetting system)을 이용하여 원고를 작성하

7) 横山桂, “大學圖書館とその専門的 職員,” 現代の圖書館, vol. 33, no. 3(1995, 9), p.162.

8) *Ibid.*

고 종이 매체, 광기록매체, 온라인 출판 등 보다 발전된 다양한 형태로의 출력이 가능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지정보는 물론 전문(full-text)정보를 정보통신을 통하여 직접 전송함으로써 전자도서관의 실현의 가능성을 높혀 놓음과 더불어 종래의 문자정보에 한정되었던 출판형태에서 음성, 화상까지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출판형태로의 매체변환은 정상인은 물론, 시각, 청각 장애인도 쉽게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해 놓음으로써 21세기 도서관의 장서구성에 일대 변혁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⁹⁾

아무튼 이러한 디지털출판의 보급은 ① 전기통신 네트워크의 뒷받침에 의한 자료의 원격이용의 실현, ② 자료의 동시 복수 이용에 의한 유용성(availability)문제의 해소, ③ 하이퍼미디어(hyper media)등으로 대표되는 정보표현의 다중화에 의한 정보제공의 고도화, ④ 정보의 수정 및 개정의 용이로 리얼타임(realtime) 정보서비스 범위의 확대 등의 특징¹⁰⁾을 지니고 있어 단지 출판만이 아니라 도서관봉사의 제공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킬만큼 도서관봉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컴퓨터기술의 영향을 살펴 보면, 금세기 후반에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중에서 최대의 변화라고 하면 컴퓨터기술의 실용화와 그 도입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최근의 정보기술을 든다면 역시 정보의 바다(sea of information)로 불리우는 인터

넷의 보급과 이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山崎久道는 1994년에 발표한 한 논문에서 도서관이 놓여 있는 위치와 정보루트를 도서관의 기능을 중심으로 <그림 1>과 같이 제시해 놓고 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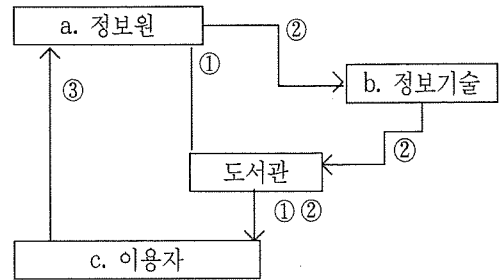


그림 1.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과 정보루트

<그림 1>에서 ①은 재래형의 서비스제공 루트를 나타낸 것으로, 도서관이 인쇄물을 중심으로 한 정보원을 미리 장서로 갖추어 놓거나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입수해서 최종적으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통적인 방식이며, ②는 ①보다 새로운 루트로서, 정보기술을 거쳐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이용중개(온라인 정보봉사 포함), 대행검색, CD-ROM 이용, 비디오카세트 대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 비하여 ③의 루트는 최근에 나타난 것으로서, 이용자가 도서관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정보원에 접근하여 정보를 입수하는 것으로, 이는 온라인데이터베이스나 PC통신의 이

9) 이종문, “정보화사회의 도서관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도서관, 1권, 1호(1996, 봄호), pp.16~17.

10) M. K. バックランド, 圖書館・情報サービスの理論, 高山正也 譯(東京: 勁草書房, 1990), p.96.

11) 山崎久道, “高度情報社會における圖書館の戰略試論,” 三菱総合研究所報, no. 26(1994), p.42.

용이 큰 역할을 한데서 기인한 면도 있지만, 특히 인터넷의 본격적인 보급과 기업체라든가 대학등의 LAN구축에 따른 이용자들의 정보입수에 대한 옵션(option)의 증대 등이 이러한 경향에 더욱 박차를 가한데서 생겨난 현상이라 하겠다.¹²⁾

이처럼 21세기를 눈 앞에 둔 도서관의 주변환경은 컴퓨터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커다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정보원은 점점 다양화되어가고 정보기술도 더욱 더 발전하여 이용이 간편한 시스템(user-friendly system)의 증가가 점쳐지고 있는가 하면, 이용자의 요구도 점점 다양화, 개별화해 감과 함께 고차적인 욕구의 증가가 예견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래드너(S. J. Ladner)와 틸만(H. N. Tillman)이 1993년에 미국의 대학 및 전문도서관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상황과 이용목적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금은 비록 커뮤니케이션 수단

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고(91%와 66%) 본격적인 전자도서관화에 불가결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이용(34%)과 파일 전송(file transfer)은 아직 이용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고는 있지만(34%), 이용목적의 다양성을 볼 때 특히 인터넷의 충격은 그 특징을 “무한한 정보자원, 다양한 탐색도구, 거리의 무제한”¹³⁾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처럼 “개인의 정보접근의 지평선을 한없이 넓혀 놓음으로써 점점 이용자가 직접 정보원에 접근하는 루트를 확장시켜 놓을 것으로 내다 보이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될 경우 기업, 개인을 불문하고 도서관너머에서 직접 행하는 정보수집이 보편화”¹⁴⁾될 우려성도 안고 있어 특히 “도서관 밖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나 소위 전자도서관이 정비되게 되면 지금까지 존재한 도서관은 불필요하게 된다는 극론까지도 들려오는 것”¹⁵⁾처럼 이 또한 도서관봉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 대학 및 전문도서관의 네트워크 이용상황과 이용 목적¹⁶⁾

항 목	이용상황	이 용 목 적
업무상통신, 전자우편	91%	외부인과의 교신, 내부인이나 이용자와의 교신, 이용자에게 전자 참고봉사제공, 타도서관과의 전자 참고봉사협력, 이용자 질문의 전자접수, 타도서관과의 상호협력 정보교환, 행방불명도서의 탐색, 위원회개최조정, 콘소시엄업무, 이용자로부터의 기술지원접수, 신규자료의 구입희망 접수 및 발주, 저작권 허락, 교육훈련 데모, 특정응용분야소프트(application soft)의 시험제공

12) 山崎久道, “電子時代と圖書館員の専門性,” 現代の圖書館, vol. 33, no. 3(1995, 9), p.156.

13) 김선화, “도서관전용 인터넷 탐색도구에 관한 고찰,” 圖書館文化, 36권, 6호(1995, 11.12), p.13.

14) 山崎久道, “電子時代と圖書館員の専門性,” p.157.

15) *Ibid.*, p.159.

16) S. J. Ladner and H. N. Tillman, *The Internet and Special Libraries: Use, Training and the Future*(Chicago: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1993), pp.19~21.

항 목	이용상황	이 용 목 적
전자포럼, 전자게시판, 전자잡지	66%	뉴스그룹, 도서관게시판시스템(BBS), 전자포럼 체크 및 참가, 전자잡지나 전자 뉴스레터로의 접근, 학습과정·회의·장학금·취직에 대한 정보입수, 특정주제 분야포럼참가, 포럼운영자로서의 작업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검색	34%	외국 도서관의 소장목록이나 종합목록 검색, RLIN, LEXIS, EPIC, MEDLINE 등의 온라인 시스템 검색, BIOSCI·UnCover등의 취급잡지표제 열람, 외부 non-OPAC데이터베이스검색, 기관내 호스트상의 데이터베이스 검색
file transfer, 데이터 교환	34%	FTP경유의 파일검색, 자료수령, 검색결과·수입기록·논문 등의 파일 송신, 우 송리스트작성, 기술데이터 교환
연구 및 출판	26%	공동연구·논문공동저작, 편집자나 출판사와의 연락, 학위논문등의 공간을 전제 로 한 집필, Project Gutenberg작업, 전자출판, 논문원고에 대한 코멘트 부여
개인적 통신, 오락적 이용	9%	친구 또는 친지와의 사적연락, 대학내 아동과의 연락, 게임

3.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21세기 대학도서관 의 변모와 사서의 전문성

3.1 21세기 대학도서관의 변모

전술한 바와 같이 21세기의 파피루스로 불리우는 광기록매체의 개발과 컴퓨터기술발전의 조화로 이루어진 자료의 디지털화, 전기통신 네트워크의 뒷받침에 의한 자료의 원격이용의 실현화와 동시 복수이용화, 자관의 장서와 봉사체제를 기본으로 하여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구축된 도서관전산화 등은 21세기의 대학도서관을 종이매체도서관, 전산화(기계화) 도서관, 전자도서관이라고 하는 세가지 개념이 함께 공존하는 도서관으로 변모시켜 놓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의 대학도서관이란 인쇄매체로 된 자료가 한권이 없어도, 오늘날의 대학도서관과 같은 거대한 건물과 공간이 없어도 학술활동에 필요한 학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하여야 한다”¹⁷⁾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학자도 있는 것처럼, “20세기의 대학도서관의 평가가 장서보유량에 그 기준을 두었다면 다가올 21세기의 대학도서관의 평가기준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어떻게 접근시켜 줄 것인가”¹⁸⁾에 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되기 때문에 비록 세가지의 개념이 공존하기는 하지만 21세기의 대학도서관은 전자도서관 형태의 도서관으로 변모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대학도서관의

17) 한상완, 등, “미래형 대학도서관 모형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9집(1995, 12), p.66.

18) *Ibid.*, p.64.

자료형태와 기능을 중심으로 변모의 특징을 몇 가지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¹⁹⁾

① 20세기의 대학도서관의 자료는—최근 들어 전자매체인 데이터베이스나 CD-ROM을 갖 추기 시작하고는 있지만—대부분 인쇄매체 중심인 도서와 연속간행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을 둘러싼 정보환경의 변화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출판의 다양화와 전자매체가 지니고 있는 정보의 유용성과 접근성, 네트워크 구축의 다양화와 이용의 보편화에 따른 정보접근행태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비록 아직까지는 디지털자료의 경제성에 문제가 많지만, 오키슨(Ann Okerson)이 “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기에는 시기상조라 하더라도 학술출판계를 보면 출판비의 상승, 출판요구와 관련된 연구성과의 증대, 연구예산의 압박에 따른 출판물구입의 감소의 타개책의 하나로 전자출판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²⁰⁾고 지적한 바처럼 21세기의 대학도서관의 장서구성은 전자매체에 비중을 둔 구성으로 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전자도서관의 개념을 도입할 경우에

는 직접적인 래관이용은 감소하는 반면 원격이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각 도서관들도 이를 전제로 하여 종이매체와 달리 서로간에 중복소장을 피하고 타도서관의 정보원으로서의 접근을 확장해 나감과 동시에 열린 도서관을 의미하는 자원공유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여겨지며, 아울러 1관당 장서량을 줄이고 단위면적당의 정보집적도(情報集積度)를 높임으로서 장서유지비와 수장공간비용의 절감 및 도서관운영의 경제성 등의 효과도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② 자료의 선정 및 수서절차를 보면 지금까지는 주로 출판사나 서적대리점 등의 간행목록 혹은 출판관계서지 등의 제한된 도구를 이용하여 자료를 선정하고 구입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대금결제 등의 제반 사무적인 절차가 부수적으로 따랐지만, 21세기의 대학도서관들은 전자출판의 보급, 전문데이터베이스의 증가,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학술지의 전자적 배포 등의 추이를 볼 때 컴퓨터네트워크를 이용한 학술정보의 선정과 전자결제방식에 의한 대금결제형태를 채택

19) 21세기 대학도서관의 변모의 특징에 대한 견해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 日米ワンデイセミナー・第13回大學圖書館研究集會報告集編集委員會 編, 21世紀 に向けての大學圖書館(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93)
- 高山正也, “機械化圖書館から電子圖書館への展開,” 現代の圖書館, vol. 33, no. 4(1995, 12), pp.231~237.
- 한상완, 등, op. cit., pp.64~89.
- 山崎久道, “電子時代と圖書館員の専門性,” pp.155~161.
- Laverna M. Saunders, “Transforming Acquisitions to Support Virtual Libraries,”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vol. 14, no. 1(Mar. 1995), pp.41~46.
- Peggy Johnson, *Automation and Organizational Change in Libraries*(Boston: Hall, 1991)
- Caroline R. Arms, *Campus Strategies for Libraries and Electronic Information*(SI: Digital Press, 1990)
- Margo Crist, “Structuring the Academic Library Organization of the Future,”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vol. 20, no. 2(1994), pp.47~65.

20) Ann Okerson, “Can We Afford Digital Information in Libraries?” *デジタル圖書館の將來展望*, 1995(金澤工業大學.圖書館, 情報科學に關する國際ラウンドテーブル 會議)

함으로써 정보입수의 신속화와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자료조직과정을 보면 대체로 지금까지는 수작업형태나 MARC형태의 종합데이터베이스에서 다운로드(download)를 받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21세기에는 그 시기의 자료환경에 적합한 분류 및 목록 작성 전문가 시스템이 개발되어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목록작성의 경우는 이용자들의 정보접근방식에 변화가 예상되므로 전형적인 재고관리적 측면보다는 주제분석적 측면 쪽이 더 중요시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④ 21세기의 대학도서관들은 자원공유를 위해 도서관에서 생산하는 학술정보에 관한 전문데이터베이스, 교수들의 강의내용을 수록한 멀티미디어데이터베이스,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지식베이스 등의 생산을 위한 정보생산체제를 갖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21세기에는 번역서비스가 많이 요구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외국학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이용자를 위한 기계번역시스템의 도입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⑤ 지금까지의 정보제공형태를 보면 대체로 'man-man interface'를 통한, 즉 '사서에 의한 간접검색' 방법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21세기 대학도서관에서의 정보봉사는 대면봉사의 요구도 그대로 존재하겠지만 'man-machine interface'를 통한, 즉 '이용자 직접검색' 방법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지금까지 일반도서관에서는 예외적인 봉사료 취급해 왔던 SDI서비스도 전자도서관 관련 기술의 도입으로 간단하게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21세기에는 아주 활발하

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뿐 아니라 미래의 대학도서관은 이용자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집이나 연구실 또는 각 학과에 설치된 워크스테이션(work station)을 통해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⑥ 21세기의 대학도서관은 디지털자료의 보급으로 인해 정보를 수장해 두는 거대한 센터로서의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네트워크화된 정보원으로서의 접근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그 기능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서고의 개념도 유한수장능력의 개념에서 무한수장능력의 개념으로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1세기에는 오늘날 대학도서관에서 수행하는 도서관 업무의 90% 이상이 컴퓨터에 의해 처리될 뿐만 아니라, 대학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인 외부환경도 정보화 사회의 기반구조인 초고속정보통신망, 학술정보의 디지털화, 컴퓨터의 지능화,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의 일반화 등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⑦ 21세기의 대학도서관은 전술한 바와 같은 내적 환경의 변화로 조직에도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도서관에 컴퓨터가 도입됨에 따라 생겨난 첫번째 큰 변화를 든다면 도서관의 조직과 의사결정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도서관은 업무를 대체로 기술봉사업무와 공공봉사업무로 대별한 후 그 아래서 각각 세분화시켜 각자의 기록양식에 따라 대부분 상호간에 관계없는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각 부서는 한 개의 시스템을 공유하게 되고, 서로의 관련도 잘 들어나게 되었

으며, 이러한 시스템의 설계 및 변경단계에서도 각 부서의 대표가 모여 협의하지 않으면 안됨에 따라 도서관의 정리부문이나 봉사부문의 각 부서간의 빈번한 접촉, 긴밀한 관계유지, 상호이해의 도모 등도 생겨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정보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프로젝트나 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기술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행태도 크게 무너지가는 경향이 있으며, 인적 구성면에서도 모리타(I. T. Morita)와 가펜(D. K. Gapen)이 OCLC에 가입한 대학도서관을 조사한 결과 오하이오주립대는 편목담당전문사서가 30%, 아리조나주립대는 22%가,²¹⁾ 그리고 에스코즈(P. A. Eskoz)가 미국 대학도서관 106개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자동화된 목록네트워크에 가입한 후 5년간 편목담당사서는 평균 20%가 감소한 반면 보조직원은 극소수 증가했다고 밝힌 바처럼,²²⁾ 정리업무부문 전문사서의 20~30% 감소와 준전문직원(paraprofessional staff)의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 도입의 영향으로 상기와 같이 조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한 변화가 예측되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볼 때 조직구조의 경우 기존과 같이 계층수가 많고 통솔의 폭이 좁은 수직적 조직형태가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과정에서 보다 경제적, 합리적일지, 계층수가 적고 통솔의 폭이 넓고 자율권을 확대해 놓은

평면조직이 좋을지, 아니면 직능부제조직위에 프로젝트조직을 첨가해 놓은 매트릭스조직(matrix organization)이 좋을지 아직은 속단하기가 어렵다. 또한 부문화방법도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능-기능별 또는 기능-목적별 직능구조로 하되 외국 대학도서관의 사례에서도 보이듯이 수서·정리통합방식, 정리·열람통합방식, 수서·정리·연속간행물통합방식 중 어느 것이 합리적일지, 아니면 목적별 직능구조로 하되 모든 자료를 주제분야별로 나누어 자료선정·정리·봉사업무를 한 곳에서 행하는 목적-기능별 또는 목적-목적별 부문화가 좋을지, 그리고 인적구성도 상술한 바와 같이 구미 대학도서관의 사례를 보면 정리업무담당 전문사서의 경우 20~30%의 절감효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서와 일서가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도서관마다 자료조직시스템이 다르고, 그 중 국내자료가 전체 자료의 40~50%를 점유하고 있는 데 비해 금년부터 본격적인 시판을 시작한 문헌정보 CD-ROM을 보면 납본자료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체로 자료가 출판된 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서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실정하에서 과연 외국과 유사한 절감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지 성급한 판단과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이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한 모형개발이 요구된다.

21) I. T. Morita and D. K. Gapen, "A Cost Analysis of the Ohio College Library Center On-line Shared Cataloging System in the Ohio State University Libraries,"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ol. 21, no. 3 (Summer 1977), p.300

22) P. A. Eskoz, "The Catalog Librarian-Change or Status Quo? Results of a Survey of Academic Libraries,"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ol. 34, no. 3(July 1990), p.382.

3.2 사서의 전문성

지금까지 대학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정보환경의 변화 추이와 환경변화에 따른 21세기 대학도서관의 모습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그러면 이와같은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처해 가면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려면 사서들은 전통적인 직무수행 외에 어떤 업무에 중점을 두어 자기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에 관하여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주요한 것 몇가지를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²³⁾

① 현재 널리 보급되어 가고 있는 인터넷 붐은 사서나 정보전문가 그 자체의 존재 의의를 상실시키고 있다는 우려성을 낳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사서들이 그러한 혼란 속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가졌던 자료 및 정보관리전문가라는 관념을 버리고 이용자를 위한 정보·지식·문화의 게이트웨이(gateway)요, 네비게이터(navigator)로 자기 자신을 재생시키는 것이 주요 당면 과제라 하겠다. 그러기 위하여는 정보접근을 도와줄 수 있는 색인작성이나 목록작성에 대한 연구라든지, 전자시대에 적합한 목록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의 조속한 실현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② 전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는 사서의 2대 임무를 든다면 필요한 정보자료를 정비해서 장서로 확립해 놓는 일과 그 장서를 바탕으로 하여 정보자료를 이용자에게 적절히 제공해 주는

일을 들 수 있는데, 네트워크형태나 전자매체 중심의 대학도서관을 지향할 경우에는 정보자료를 사전에 장서로 정비해 두는 일보다도 필요할 때에 필요한 정보를 언제라도 취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확장하여 신속하게 탐색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 더 중요시 되게 되므로, 전자의 업무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때에 조달할 수 있는 'Just in Time'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후자, 즉 자료관리보다는 사람들의 정보접근의 개선이나 정보증가에 보다 임무의 중점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밀어닥칠 다양한 매체를 통한 더 거센 정보의 홍수속에서 어떤 정보를 입수해야 좋을지 몰라 당혹해 하는 도서관의 현재적, 잠재적 이용자들에게 능동적,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도서관이 되지 못한다면 도서관은 더 이상 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거점이라고 일컬어질 수가 없는 시대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③ 네트워크나 전자매체를 통한 이용자들의 정보접근형태를 보면 주제에 의한 접근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사서들은 전통적인 목록작성보다 주제분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④ 대학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정보환경을 보면 이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너무나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사서들이 이러한 환경변화에 잘 적응해 나가고 21세기의 대학도서관을 전자시대에 걸맞은 도서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는 무

23) 21세기 대학도서관을 이끌고 나갈 전문사서가 전통적인 업무외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전문적인 자기개발분야에 대한 견해는 주19)에 제시된 자료들을 참고로 하여 종합제시하였다.

엇보다도 인터넷을 통한 정보탐색²⁴⁾을 비롯하여 컴퓨터 활용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적어도 전문사서라면 정보처리기사 2급이나 시스템관리자 정도의 지식과 능력은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전자정보에 관한 개념을 알고, 이용자 및 컴퓨터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때는 “사서란 ‘content’ 정보 전문가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관한 지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좋지 않느냐”²⁵⁾고 생각해 왔던 적도 있었으며, 이런 생각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의 사서들도 마찬가지였음이 종종 문헌에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그동안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면 프로그래밍 혹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과 활용능력으로 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과 앞으로의 세대는 다르다. PC의 보급, 패키지소프트(package soft)이용의 일상화, 네트워크환경의 정비, GUI(Graphical User Interface)의 일반화에 따라 컴퓨터나 정보시스템의 조작성이 현저히 개선되고, 또한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스템 전체를 살펴보기가 용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적어도 앞으로 3~4년후부터는 PC활용이 일상화된 세대들이 바로 대학의 구성원이 된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⑤ 전술한 바와 같이 SDI서비스는 전자도서관 관련 기술의 도입으로 간단히 행해질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봉사이기 때문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⑥ 사서들은 전자복합미디어 정보의 수집·저장·검색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이용자 수준과 주제요구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의 수집 및 개발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⑦ 21세기 대학도서관에서의 정보봉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용자 직접 검색, 즉 셀프서비스(self-service)에 의한 이용이 급증할 것이므로 사서들은 이의 이용법에 관한 철저한 이용자 교육과 안내지시의 충실, 조작이나 수속의 단순화, 표준화 등의 강구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네트워크를 비롯한 학술정보탐색법에 관한 이용자교육은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당국과 협의하여 정규교과과정(교양과목)에 편성하되, 각 학문분야의 특성에 맞추어 교과내용을 편성하고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⑧ 학내에 전자매체에 의한 정보자원이 증대해 가게 되면 종래와 같은 직무의 세분화에 따른 ‘부분 전문가’의 요구보다는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입을 위한 계획·설계, 실시 및 섭외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필요성과 한정된 예산 가운데서 최대의 봉사를 위해 종래의 인쇄물과 전자정보의 수집방침, 타도서관과의 상호이용과 자관 수집과의 관계, 학내 시스템의 개발과 학외 시스템 이용과의 관계, 새로운 전자매체에

24) 도서관전용 인터넷 탐색도구에 관한 소개는 김선화, *op. cit.* 참조.

25) 山崎久道, *op. cit.*, p.159.

대한 이용자 교육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기획·판단·실행할 수 있는 정보자원관리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증증될 것이므로 앞으로의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종합적인 관리능력배양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지금까지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21세기 대학도서관의 변모와 사서의 전문성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도서관경영 사상의 발달과정을 보면 대체로 도서관은 경영기법의 변화보다는 전통적인 관리기법을 지켜나가거나 그러한 관리방법을 전수하려는 보수적인 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²⁶⁾ 과학적 관리법이라든지, 현대적 경영기법이라든지, 컴퓨터 등의 도입이 늦어진 것도 그러한 성향에서 기인한 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하겠으며, 그 이유는 곧 변화에 대한 사서들의 불안의식, 저항의식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학자들은 지적하고들 있다.²⁷⁾

그러나 도서관의 주변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1세기의 대학도서관은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학교육의 주변환경 변화라든지 도서관 주변의 급진적인 정보환경의 변화추이를

볼 때 불확실성의 시대에 처하게 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그러한 시대적 환경에 잘 대처해 나가려면, 지금까지는 도서관이 비영리조직이기 때문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아 왔으나 20세기 말에 접어들면서부터 선진국 대학도서관들도 자구책의 일환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도 '전략적 경영'에 관심을 갖고, 그동안 '구조계획'수립으로 일관해 왔던 경영방침도 이제는 외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계획'수립에 전문사서들은 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²⁸⁾ 이 뿐 아니라 현재 널리 보급되어 가고 있는 인터넷 붐은 사서나 정보전문가 그 자체의 존재의의를 상실시킬 우려성마저 놓고 있을 만큼 정보환경의 변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사서들이 그러한 혼란속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가졌던 자료 및 정보관리전문가라는 관념을 버리고 이용자를 위한 정보·지식·문화의 게이트웨이요, 네비게이터로 자기 자신을 재생시키는 것이 중요한 당면과제라 하겠으며,²⁹⁾ 그러기 위하여는 사서들은 무엇보다도 정보원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정보기술의 내용 및 비용 대 효과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전자시대에 맞는 도서관 봉사를 위한 컴퓨터 활용과 종합적인 기획·판단능력 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6) Robert D. Stueart and B. B. Moran,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Management*. 4th ed.(Englewood, Colo. : Libraries Unlimited, 1993), pp.290~ 294 ; G. Edward Evans, *Management Techniques for Librarians*. 2nd ed. (New York : Academic Press, 1983), pp.47~48.

27) Johnson, *op. cit.*, pp.92~101.

28) Donald E. Riggs, *Strategic Planning for Library Managers* (Phoenix : Oryx Press, 1984), pp.1~10.

29) 山崎久道, *op. cit.*, pp.158~159.